

# 龍頭蛇尾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내창엽 / 한국무역시장정보 사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기반조성과 데이터베이스 산업육성을 위해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보급사업이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야 기반을 잡아가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사회의 꽃이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결과로 생산된 대량의 정보를 수집·처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정보산업의 기반 구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의 핵심분야로서 정보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정보에 대한 수요기반이 취약하고 정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선진국이나 경쟁상대국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60년대부터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육성·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질, 법과 제도, 기술 및 유통, 공급 등 모든 면에서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 94년부터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시행으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밝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확장과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 그리고 운영 등을 위한 중장기 육성을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도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의 수요 폭발에 대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에 공공데이터베이스로 개발된 텍스트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에 대해서도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잘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

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선진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추진을 중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후관리 문제를 개발업체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경제입국이라는 커다란 명제아래 고도경제 성장을 이루어왔듯이, 지금은 정보화 입국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핵심이며 정보화의 기반자본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가 보장된 유망사업으로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이미 개발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경우도 개발비에서만 보조사 되고 유지·보수쪽을 개발업체에 모두 전가시켰는데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성격자체가 공공성을 가진 자료로서 상업적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개발후의 사후처리의 미숙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공공데이터베이스 자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사후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가 그래픽쪽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공공데이터베이스들이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인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도 모두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강화된 웹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의 개발들도 이러해야 될 것이다.

또, 요즘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초고속망만 깔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가시화된 정보의 혜택이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조율도 없이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 지원이 끝난다면 초기에 말했던 용두사미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었거나 신규로 개발예정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가 될 때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라는 대명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DC**

본란에 게재된 원고의 취지는 본지의 의견과 달리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